

중소경영안정자금 擴大지원

상공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 및 판매난등으로 인한 부도급증에 대처,올해 마련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은행특별자금 5천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金泳三 차기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경영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토지·환경·산업안전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구조조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키 위해 현재 1조원의 기금을 98년까지 2조원으로 늘려 자동화와 기술개발등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

업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 내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중소기업지원 행정조직도 개편, 상공부 중소기업국을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산하에 권역별로 '지방중소기업청'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분야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신정부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키 위해 산업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과 세제·교육·환경·기술·정보·토지·노사등

관련분야들이 산업발전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연계시키 나갈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무역분야에서는 금년도에 무역수지를 국제수지기준으로 균형을 이루고 통상부문에서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키 위해 산업 및 기술협력 위주의 통상활동을 전개하며 국내 주요 프로젝트사업과 통상현안을 통상교섭시 연계, 활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대외무역을 지원하는 대외홍보와 전시·연수·상담알선 등 서비스기능을 전담하는 기업도 육성해 나가고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집중적·체계적 연구를 위해'중소기업연구원'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市道別 中企지원시책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첩경이라고 보고 올들어 적극적인 중기육성시책을 펴고 있다. 다음은 각 시도가 올해 펼치는 중소기업부문 지원시책을 요약한 것이다...◇

▲ 서울 =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 금고인 상업은행을 통해 지난해 62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2백14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융자한도도 1억원까지로 확대되며 비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과 아파트형 공장도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 釜山 = 창업자금 50억원과 신발합리화 자금 7백억원등을 지원한다.

또 江西구 智士동 일대에 2백만평규모의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고 新湖동과 葦山동에도 각각 94만평과 2백10만평규모의 공단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 仁川 =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50억원을 새로 출연하는등 경제사업분야에 총 7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억원이하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연8%의 저리를 적용받는다.

▲ 大田 = 제4공단의 조성사업에 나선다. 해외판로개척사업을 확대하고 유통정보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 光州 =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42억3천7백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전국 시도중 처음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자금으로 5억원을 책정, 연 7%로 지원한다.

해외시장개척과 대전세계박람회참가등에 대한 지원액도 대폭 늘렸다.

▲ 大邱 = 5백51억원을 투입, 城西공단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과학산업단지의 설계도 끝내고 하반기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또 25만2천평규모의 대단위 종합유통단지 조성에 1

천5백75억원을 들여 용지보상 및 분양사업을 실시하고 11월중 기반시설공사를 확충한다.

▲ 忠南 =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5억원을 지원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에 4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唐津·石門국가공단조성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 京畿 = 올해 1백20억원을 증액해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총 5백억원을 공급, 중소기업제

품의 수출증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全北 = 산업경제분야에 1천6백24억원의 예산을 책정, 농공지구조성사업에 1백20억원, 영농기계화사업에 3백16억원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연내에 전북발전연구원을 개설키로 하고 7억5천만원의 예산에 반영했다.

家電제품 對中수출전략 再整備 시급

국산 가전제품이 경쟁국인 일본산 제품에 비해 품질상 크게 열세에 처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S체제의 정비미흡등 제품외적인 요인으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0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와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로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향후 국내 가전업계의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A/S망의 미확보, 사후관리부재, 수출중개인들의 무성의등으로 제품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산 가전제품은 지난 89년 중국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내

려진 이후 대부분 홍콩을 통한 간접 수출방식에 의존해왔으나 고기능을 구비한 중저가품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 및 A/S책임은 지고 있는 홍콩측 중개인의 관리소홀로 제품이미지가 하급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미지개선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산가전제품의 대중국수출 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홍콩측 거래업자들은 완제품에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기위한 방법으로 품목코드를 위장하거나 완제품을 부품으로 분해한뒤 중국 현지에서 다시 조립하는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매에만 급급, A/S자체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내 가전업체의 한 중국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가전3사의 對中수출액 2억5천만달러중 80%가 홍콩을 경유한 것이었으나 홍콩 중개상들 대부분 중국내 사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수리용 부품을 추가로 구입해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해외시장에서 일본산 제품의 두터운 벽에 막혀 고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산 가전제품이 이제 막 시장규모가 부풀어 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에서마저 이니시어티브를 빼앗긴다면 최근 수출정체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가전업체의 앞날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출돌파구마련을 위해 동분

서주하고 있는 국내 가전업체가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제품판매에만 주력하기보다 장기적 측면을 고려, 사후관리체제의 보강등을 통한 이미지가개선작업 역시 병행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업체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싱가폴 산업시찰단 참가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업체의 애로사항 타개를 위해 외국 유명제품 제조공장 및 관련 공업단지를 견학할 기회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1. 파견기간 : 1993. 3. 8~3. 13(5박 6일)
- 2. 파견지역 : 필립스 싱가포르 공장 및 인근 공업단지
- 3. 목 적
 - 가. 선진기술 견학으로 제품 품질 향상
 - 나. 세계적인 제품 생산공정 견학으로 경쟁력 제고
 - 다. 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
 - 라. 한국기업의 진출 및 투자현황 파악
- 4. 파견인원 : 20명 내외 (다리미 및 관련 부품 제조업체 임직원)

- 5. 참가경비 : 1인당 ₩880,000 내외 (귀국후 정산)
- 6. 기타참고사항
 - 가. 여권미 발급자는 발급 수속 일체를 지원
 - 나. 현지 안내 및 숙소예약
- 7. 참가신청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9
 -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 연구개발부
 - 전화 : (02)579-3291/5
 - 전송 : (02)578-3640